

동 청

전주연꽃문화제 개최



원행스님(제17교구본사 금산사 주지, 우리문화연구원 대표) 오는 9일 전주 덕진공원에서 ‘2011전주연꽃문화제’를 개최한다.

‘티베트 불교’ 특강 개최



진화스님(서울 봉은사 주지) 오는 2일 오후1시 경내 보우당에서 신상환 인도 비스바 바라티대학 교수를 초청해 티베트 불교 특강을 연다.



내원정사, 용성스님 생가 순례

대구지역 공무원불자화도 동참

부산 내원정사(주지 정련스님)는 지난 6월 26일 대구 지역 공무원불자회와 함께 장수 백용성스님 생가를 순례했다. 이 날 장수 죽림정사 조실 도문스님은 순례단을 맞이하고 법문을 했다. <사진>

도문스님은 용성스님의 오도송을 설명하고 “대각심(大覺心)이 곧 불(佛)이니 마음을 잘 닦아 성불인연을 지어가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인환스님, 정련스님, 김용주 대구고검 부장검사, 권상조 대구과학대 교수 등 사부대중 400여명이 동참했다. 하정은 기자 kornato77@ibulgyo.com

일본 지진 피해 복구성금 전달

본지, 아름다운동행에 706만원

본지가 사상 최악의 지진으로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일본을 위해 실시한 ‘일본에 자비의 손길을 보냅니다’ 캠페인에 총 706만7500원이 모금됐다. 본지는 지난 6월14일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에 지진피해 복구기금을 전달했다.

이 기금은 조계종대표단이 오는 7월7일부터 9일까지 2박3일일정으로 피해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에서 현지 복지단체에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지난 3월14일부터 실시한 일본 피해 모금에 계좌이체 등으로 30여 건이 접수됐다. 박찬정 아름다운동행 사무국장은 “캠페인은 끝났지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웃들을 위해 연중 모금을 통해 자비를 실천해 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홍다영 기자



지난 6월27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한 신임 군승들이 군포교를 위한 의지의 파이팅을 하고 있다. 신재호 기자

“佛法 전하는데 신명 바치겠다”

군포교 선봉에 설 신임군승 14명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장도에 올랐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자광스님)는 지난 6월27일 오전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 4층 집무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신임군승 임관신교식을 거행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 자리에서 “9주간 고된 훈련을 마치고 무사히 임관해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병사들이 부대 생활에서 정신적으로 고뇌를 느낄 때 곁에서 힘이 돼주고, 자신있게 군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군승으로 사명감을 갖고 병사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신임 군승들은 “부처님 법을 전하는데 신명을 바치겠다”며 경례와 함께 합한 포부를 밝혔다.

이날 신고식에 참석한 신임 군승은 도원 고태호 법사(육군 23사단 연대), 해충전원 법사(육군 28사단 연대), 구담 한주명 법사, 희원 배희열 법사(육군 12사단 연대), 지공 고지석 법사(육군 21사단 연대) 등 육군 9명, 해군 3명, 공군 2명

신임군승 14명, 임관 신고식 자승스님 “책임 다하라” 격려

대, 진오 손기준 법사(육군 7사단 연대), 정광 김용 법사(육군 6사단 연대), 대휴 김정태 법사(육군 2사단 연대), 상월 박태환 법사(육군 22사단 연대), 상월 박태환 법사(육군 22사단 연대), 범종 성준모 법사(해군 연평도), 학원 김학진 법사(해군 진해기지사령부), 대륜 박찬우 법사(해군 인천방어사령부), 황주 권장주 법사(공군 1여단), 원공 공준석 법사(공군 2여단) 등 육군 9명, 해군 3명, 공군 2명

을 포함해 총 14명이다. 이 가운데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긴장이 고조된 해군 연평부대 호국사 주지로 부임하게 될 범종 법사의 각오가 남다르다. 범종 법사는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된 만큼 현지에서 복무하고 있는 장병들의 긴장이 고조돼 있다. 상담 등을 통한 심신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영천 3사관학교에 입교 후 9주 동안 훈련을 마치고 6월24일 임관식과 고별식을 가졌다. 이날 신고식을 마친 군승들은 배속받은 육·해·공군 각 군부대에서 군종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군종교구장 자광스님은 “이번에 임관한 군승들은 군종교구 주관 아래 각종 입대전 교육을 통해 파송 준비를 해온 정예요원으로 대부분 최전방에 배치돼 군포교에 진력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종단에서 파송된 군승으로 항상 겸손하면서 당당하게 부처님을 법을 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허정철 기자

요양환자 위한 위문공연

이천 용광사, 파라밀요양병원서

이천 용광사(주지 진경스님)는 지난 6월22일 안성 파라밀요양병원에서 요양 중인 환자들을 위해 위문공연<사진>을 열어 나눔결사를 실천했다.

행가축화로 인해 사라져가는 경로효친사상을 새기고 요양 중인 노인 환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위문공연에는 가수 김정은, 현수연, 나용의, 황영환, 김규학 씨 등이 참가해 노인들을 위해 신나는 공연을 펼쳤다.

진경스님은 “우리 사회가 핵가족화로 인해 노인들이 홀로 지내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며 노인들에 대한 존경심 또한 예전같지 않다”



며 “그동안 국가 발전과 자녀 양육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해온 우리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효친의 전통적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염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故 김재일 대표 49재 앞두고 드리는 편지

풀, 산새에 가르침 주신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불러보는 것도 참 오랜만입니다. 곁에 계시지 않음도 별 느낌이랄 것도 없는 익숙한 호칭이었지만, 지금은 추억의 단어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이라도 누군가의 대화 속에서 아버지란 말을 들으면 어쩔 도리 없이 아련한 기억 속에 빠지곤 합니다. 집안 살림과 식구를 돌보지 않는다고 분명 불평도 많이 했었고, 마지막 무렵의 이런저런 서운한 말씀에 눈물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를 떠올리면 여행에서 좋았던 일만 기억납니다. 광주 남한산성 성벽에서 한겨울 눈썰매를 탔던 일, 양평 수종사에서 한강을 내려다보며 차를 함께 마신 일, 태안 천리포

를 달아 오셨습니니다. 주변의 많은 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도 바로 그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아버지, 생전에 운영하시던 단체들이 아버지 사후에 침체에 빠질까 걱정하셨지요? 아버지께서 계심으로 해서 받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지원과 격려가 끊길까 하는 염려도 하셨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매달리셨던 불교수목원 조성 일도 그렇습니니다.

하지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불교계 큰스님들께서 장엄한 영결식을 마련해 주신 것은 물론, 이끌고 계시던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계속하겠다는 약속도 있었다 합니다. 무엇보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큰스님께서도 불교수목원을 끝까지 추진하셨

“ 집안 돌보지 않아 불평 했지만 함께했던 좋은 기억만 떠올라

‘생전 소망했던 불교수목원 추진하고 있으니 걱정마세요’



아버지와 행복했던 한때의 가족사진.

수목원 숲길을 손잡고 걸었던 일 등등. 어머니도 저희도 마음이 정리되면 꼭 다시 한 번 가볼 생각입니다. 혹여 집안 식구 챙기지 못했던 미안한 마음을 담아두고 계셨다면, 이제 전혀 마음 쓰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지금도 가슴에 품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경을 외던 노스님에게 누군가가 시험해 보듯 그 경전의 의미를 물었어. 그러자 그 스님은 하늘의 아무 별을 가리키며 이렇게 되물었지. “저 별의 이름을 아느냐?” “아니요, 그걸 제가 어찌 다 압니까?” “저 별의 이름을 자네가 모른다 해도 별이 그 자리에 있듯이, 경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진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닐세.”

본 것만 믿으려 했던 저로서는 그 이야기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처럼 길가의 이름 없는 풀에, 흙속의 벌레에, 산새와 짐승에, 그리고 스쳐지나가는 인연에 ‘노스님의 별’

다 하십니다. 49재를 위해 추모금을 모으고 동영상을 만들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사후에 이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불심’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얼마 안 되는 책 저작권이나 미 출판된 원고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자산입니다.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이렇게 든든한 자산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버지, 이제 곧 49재입니다. 다음 생애 좋은 곳으로 나실 것이 확실하니, 아버지께서는 필요 없는 의식입니다. 하지만 이번 49재는 아버지의 곁어오신 길과 그 속의 큰 염원을 기리는 자리여서, 뜻있는 분들의 마음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마음들이 넘쳐흘러서 아버지처럼 뜻있는 일을 하시는 다른 분들께도 든든한 정신적, 재정적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십시오. 그럼 다시 볼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고 김재일 대표 아들 김병주 씨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승복·전통복식 31년

www.kyksb.co.kr

● 김운경 승복·우의 옷

- 31년을 한결같이 전통복식 연구·보급
-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우리 옷
- 공장직영, 다양한 주문생산 가능

주요 품목 승복, 법복, 생활한복, 전통복 일체 신행단체 단체복, 수련복, 소품 ...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과 신행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통복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대표 김운경(무등심) 합장

기념 특가

- 고급 모직 장삼 195,000원 한정판매
- 고급면(신제품) 적삼 150,000원

내 일일이 일할 성실한 분 승복 관련 기술자 모집 ○○명 상담전화 011-9949-4444

서울본점 및 공장 02-495-7779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563-16 이안빌딩 중랑패션지원센터 903호

서울점 : 서울시 중랑구 예지동 296-31 02-2265-2278

제주점 :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416-2 064-724-7999

입금계좌 : 농협 178424-56-036570 (예금주 : 김운경)

해성 한식銅기와

서퍽찌리 기와 때문에 천냥찌리 대들보를 뺄게해서야 되겠습니까?

동기와로 시공된 중앙승가대학교 전경

한식동기와는 한식토기와의 원형을 그대로 재현하여 한옥 건축의미를 살렸으며 한번 시공으로 따로 보수공사가 필요 없는 반 영구적인 제품입니다.

신제품 한식금속기와

제품의 특징

- 우수한 내구성(50년 품질보장)
- 경제적 가격

전화 031) 677-7195

팩스 031) 677-7197

본사·공장: 경기도 안성시 죽성면 정월리 189-2

www.hskiwa.co.kr

친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성혼 전문 회사 www.bestwed2060.com

베스트결혼정보

HIGH-CLASS를 위한 고품격 결혼정보

대표 안희정

강남 중매의 명가

성사 전문

전문직 · 부유층

초혼부 (02)566-1191

재혼부 (02)566-1196

- 능력있는 전문직, 사업가, 고급엘리트 최다 보유
- 교수, 의사, 한의사, 약사, 판검사, 사업가, 교사, 고급 공무원, 회계사, 회사원, 유학생 등
- 천생연분을 만날 때까지 중매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베스트의 정직함을 확인해 보세요!

중매 2대째 37년 전통

위치:2호선 역삼역 5번출구 앞 제일은행B/D 15층 1509호

법당 특수음향 · 영상 감시카메라, 방범설비

귀의 삼보 하옵고, 저희 태영전자는 최신기술과 철저한 사후봉사를 바탕으로 수십년간 오직 신심으로 정성을 다하여 전국 사찰, 포교당, 수련원 등의 음향, 영상 설비와 방범 보안 설비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 시공후 10년간 무상으로 보수하여 드립니다.
- 전국 어디에서든지 연락 주시면 방문하여 무료로 상담설계하여 드립니다.
- 완벽한 방범설비로 귀중한 성보 유물을 안전하게 보존하시고 화재 예방등에 적극 활용하십시오.
- 최신 영상설비로 영상포교에 활용하십시오.

영업안내

- ▶ 법당 특수 음향설비
- ▶ 감시 카메라 방범설비
- ▶ 법당 영상설비
- ▶ 위성 방송 수신설비

태영전자(주)법한산점 Tel : (02)2274-6767

Fax : (02)717-5781 H·P : 010-8345-5423